

# 대마도는 우리 땅 진짜? 진짜!

일본의 독도 망언, 역사교과서 왜곡, 다케시마의 날 제정 등을 둘러싸고 일어나는 많은 분쟁으로 인해 우리나라 국민들의 감정이 폭발하고 있다.

독도를 지키고, 역사교과서를 바로 잡고자 하는 국민들의 노력이 곳곳에서 행해지고, 이를 계기로 왜곡된 우리 역사, 우리가 미처 인식하지 못한채 남의 나라에 예속되어 있는 영토 등에 대한 새로운 시각이 열리고 있다.

그러한 시각의 하나로 대마도가 우리나라 영토라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어, 대마도가 어떠한 연유로 우리 영토에 속하는지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자.

### ■ 지리적 위치

대마도가 일본의 영토라고는 하지만 사실 일본보다는 우리나라와 더 가까워 부산에서는 대마도가 보이지만 일본에서는 보이지 않는다. 부산에서 약 50km, 규슈혼도에서는 147km나 떨어져 그 지리적 위치만 큼이나 한국의 정취와 역사가 살아 숨쉬고 있다.

이처럼 대마도는 한국과 일본 두 나라사이에서 가교역할을 하며, 오랫동안 대륙문화를 일본에 전하는 중요한 창구역할을 해왔다. 신라의 사신 박제상의 순국비(殉國碑)와 백제 도래인들이 축성한 금전성(金田城), 기원전 3세기 신라의 일족이 정착하면서 전파시킨 붉은 쌀(적미), 옛 이즈하라의 성문이었던 고려문, 한일 우호를 상징하는 조선통신사, 구한말 대 유학자이자 항일운동가였던 최익현 선생의 순국비 등 한일 간의 다난한 역사가 곳곳에 숨어 있다.

뿐만 아니라 산고양이, 말, 고려뽕 등 일본열도에서는 볼 수 없는 동물들이 서식하고 있고, 이 섬의 웬만한 사찰에는 신라불이나 고려불, 조선의 범종이 모여져 있다.

### ■ 역사적 측면

#### ▶ 고지도



우리나라 고지도를 보면 조선 초에 발행된 것부터 한말에 이르기까지 거의 빠지지 않고 대마도가 등장하고 있다. 그 중 1530년에 제작된 「신증동국여지승람」의 팔도총도에는 울릉도와 독도는 물론 대마도도 명확히 표시되어 있다.

또한, 17세기 국보 240호 자화상의 화가 공재 윤두서(1688~1715)가 그린 「동국여지도」는 강줄기와 산맥의 표시를 정확하고 섬세하게 표현하고 주변도서, 섬과 육지의 연결수로까지 자세하게 표시하였는데, 여기서 대마도는 실제 크기보다 아주 크게 그려져 대마도가 우리나라 영토라는 생각이 이어져 오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우리나라 지도에 남의 나라 섬을 굳이 표시하지 않듯 당시 대마도를 우리나라 영역으로 인식하고 있음이다.

### ▶ 고서

「조선왕조실록」에 언급된 대마도는 조선의 속국이었다. 태종은 “대마도는 본래 우리나라 땅이나 다만 궁벽하게 막혀 좁고 누추하므로 왜놈이 살게 내버려두었더니 개같이 도적질하고 쥐같이 훔치는 버릇으로 군민을 살해하고 과부가 바다를 보고 탄식하는 일이 해마다 없는 때가 없었다”며 대마도 정벌을 약속했다. 그리고 세종대왕 때에 이르러 대마도는 정벌되었다.

또 16세기에 조선 조정이 펴낸 지리서인 「동국여지승람」에도 “대마도는 옛날 계림에 속해 있었는데 언제 왜인들의 소굴이 되었는지 알 수 없다”고 쓰여있다.

### ▶ 구당관(勾當官)과 상소

대마도가 속주(屬州)라는 의식은 고려때부터 있었다. 고려 중엽 대마도주에게 구당관(勾當官)과 만호(萬戶)라는 관직을 내린 사실이 이를 뒷받침한다. 이와 비슷한 사례로는 제주도의 성주(星主)를 ‘탐라구당사’로, 일기도(대마도와 구슈섬 사이에 있는 이키섬) 도주(島主)를 ‘일기도구당관’이라고 명명한 것에서 찾아볼 수 있다.

구당관은 고려시대 변방 지역 내지 수상(水上) 교통의 요충지를 관장하는 행정 책임자들에게 붙인 관직명이다. 이를 보면 탐라, 애마도, 일기도의 지배자에게 고려가 구당사 혹은 구당관이란 명칭을 붙인 의미를 알 수 있다. 즉 앞의 세 섬을 고려의 속령으로 인식하였거나 아니면 고려 정부가 대마도와 제주도를 고려 고유의 지배 질서 속에서 같은 차원으로 취급하고 있었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1419년 이종무 장군은 병석 227척에 1만7000명의 대군을 끌고 대마도를 정벌하였다. 1436년 대마도의 식량사정이 어려워지자 도주인 소우 사다모리는 대마도를 아예 조선의 한 고을로 편입시켜 달라는 상소를 올리기도 했다. 이에 조선은 대마도를 경상도에 예속시키고 도주를 태수로 봉했다. 그래서 18세기 초 조선 통신사를 따라 일본을 방문한 신유한의 「해유록」은 “이 섬은 조선의 한 고을에 지나지 않는다. 태수가 조선 왕실로부터 도장을 받았고 조정의 녹을 먹으며 크고 작은 일에 명을 청해 받으니 우리나라에 대한 번신(藩臣)의 의리가 있다.”라고 말하고 있다. 

